

내고장 일꾼



김병내 남구청장은 6일 오전 11시 푸른길공원서 열리는 '제 269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참석한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6일 오전 10시 동천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열리는 '제 268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참석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6일 오후 1시 30분 구청장실에서 '북구청검도선수단 간담회'를 주최한다.

'가족사랑 체험캠프' 개최

웹툰 강의 등 프로그램 풍성

광주 남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와 부모가 미술 공연과 과학실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간 유대감을 높이는 2018 여름방학 가족사랑 체험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2018 여름방학 가족사랑 체험캠프는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남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남구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형 행사답게 아이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먼저 이홍수 미술사를 포함해 4명의 미술사가 선보이는 북화술 매직 및 공중부양 등 네모선장 팽팡쇼 미술 공연과 미이라 및 폭탄 주사위 미술 체험은 아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날 체험 캠프에서는 교과서에 실린 웹툰 이야기를 소재로 한 강의와 과학을 소재로 한 과학체험 활동도 진행된다.

조선대학교 황중환 교수는 이날 일상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재미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웹툰 강의에 나서며, 서산초등학교 이경학 교사는 물리역학이 융합된 빙글빙글 세상 만들기 게임을 비롯해 생활 속 물리법칙을 소개하며 자녀와 부모를 신명나는 과학 체험의 세계로 이끌 예정이다.

참가자 모집 인원은 초등학교 1~4학년 70명과 학부모 50명으로 팀별 선착순 모집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교육지원과(607-2433)로 문의하면 된다.

/김중찬 기자

김병내 구청장 내부 소통 '적극 행보'

"외부인을 통한 인사 청탁에는 귀를 닫겠습니다. 또 공직문화와 관련해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명 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하겠습니다."

취임 한 달째를 맞은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직원들과의 소통에서 광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6일 남구청에 따르면 김병내 구청장은 취임 직후 관내 16개동을 순회하며 주민들과 현장 소통을 끝마친 뒤 곧바로 공직사회 구성원간 내부 소통을 강화했다.

이메일 공개·자유 토론방 오픈 직원 고충 청거 인사청탁·부조리 차단 등 투명성 강화 '쟁결음'

김 구청장이 내부 소통 강화에 나선 이유는 공직사회의 조직운영이 투명하고, 각종 부조리를 차단하는 문화가 굳건하고 올바르게 서 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남구 발전을 이끌고, 22만 주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 등이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내부 소통을 위해 꺼내든 카드는 김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공개다.

김병내 구청장은 지난 1일 오전에 열린 '남구 가족 소통 & 공감의 날' 정례조회에서 공무원 760여명의 고충 해결사를 자처하며 개인 이메일을 공개했다.

인사와 관련한 고충 및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내부 부조리 고발 등 그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며 속앓이를 했던 직원들의 고민을 직접 청거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중이었다.

김병내 구청장은 이날 조회에서 "직원들이 외부인을 통해 인사를 청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인에 의한 인사 청탁을 거부하고, 외부인들 역시 인사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병내 구청장은 지난달 남구청 노동조합에서 직장내 건전한 조직 기풍 마련을 위해 건의한 무기명 자유 토론방 운영 제안을 전격 수용했으며, 토론방은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남구청 무기명 자유 토론방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던 2014년까지 유지됐다가 정부가 관리하는 업무처리 전산화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으로 변경되면서 자동 폐쇄됐다.

이후 남구는 지난 2015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표준·전산화한 새울행정시스템 내에 실명제 자유 토론방을 유지해 오다가 이번에 무기명 자유 토론방을 오픈하게 됐다.

김병내 구청장은 "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열린 공간에서 건전한 토론을 통해 남구 지역사회가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중찬 기자

토요 문화 체험학교 참가자 모집

6일부터 40명 선착순...9~10월말까지 실시

광주 남구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 광주·전남지역 주요 문화자산을 둘러보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꿈과 끼를 키우는 '토요 문화 체험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5일 남구에 따르면 '토요 문화 체험학교'는 오는 9월부터 10월말까지 총 6주(기수당 2회)에 걸쳐 각기 다른 주제로 운영된다.

먼저 토요 문화 체험학교 제1기 참가자들은 오는 9월 8일에 각각 양림동 역사문화마을과 중심사, 의재 미술관, 춘설헌 등지를 탐방한 뒤 양림동에서 정크아트 체험을 하게 된다.

또 15일에는 강진으로 떠나 백련사와 다산초당, 강진 청자 박물관, 강진 된장 만들기 체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기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9월 29일과 10월 6일에 각각 성거산 및 구

레스토리텔링 역사 여행이라는 주제로 환벽당과 증장사, 광주향교, 광주 도예문화센터 도자기 체험을 비롯해 구례 매천사와 화엄사, 운주루, 우리밀 피자 만들기 체험 활동을 함께한다.

3기 프로그램은 10월 20일과 27일에 대촌과 해남지역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는 것으로 꾸려진다.

과교정수와 포충사, 고싸움테마전 시간, 월봉서원을 둘러본 뒤 두부 만들기 체험을 하고, 해남 녹우당을 비롯해 윤선도 기념관, 대흥사, 땅끝을 방문한 뒤 김치 만들기를 마지막으로 체험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토요 문화 체험학교 참가자 모집은 6일부터 각 기수별로 4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672-6966)로 문의하면 된다. /김중찬 기자

'에너지 절약 운동' 본격 시동

개문 냉방 영업금지 등 집중 계도·단속

광주 남구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8월 한달간 에너지 절약 운동 활성화와 에너지 자원 낭비 요인 제거를 위해 16개동 주민들로 구성된 '절전 지킴이'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관내 16개동 주민 32명으로 구성된 에너지 지킴이들은 지난 2일 구청에서 모임을 갖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8월 한달간 2인 1조로 나눠 여름철 냉방기기를 가동하는 관내 상점

등을 돌며 에너지 낭비 사례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상점 등에 대해서 실내 적정온도인 26도 이상 냉방 유지를 권고하고, 문을 연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에너지 낭비 차단 및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민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중찬 기자



희망주택 리모델링 착공식. 광주 남구는 지난 3일 오전 양림동에서 주거환경이 취약한 소외계층 세대를 위한 무료 수리 프로젝트 '희망주택 81호점 리모델링 착공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이마트 봉선점의 남구 희망주택 성금과 양림동 복지호민관협의체에서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진행됐다.

'폭염사투' 환경미화원 근무시간 조정

폭염경보시 정오~오후 3시 업무 일시 중단

광주 남구는 폭염에 맞서 길거리 환경 관리에 나서고 있는 환경 미화원들의 건강 관리에 나선다.

남구청은 환경 미화원들의 휴일 근무시간을 1시간 앞당겨 진행하고, 탈수 방지를 위해 희망자에 한해 정제 포도당을 지원하는 등 여름철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남구는 지난달 28일부터 환경 미화원들의 휴일 근무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로 변경했다.

기존의 휴일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낮 12시까지였다. 환경 미화원의 휴일 근무시간을 조

정하게 된 이유는 환경 미화원들이 불볕 더위에 노출돼 건강상태가 악화될까 우려해서다.

이와 함께 남구는 폭서기 기간 중 토요일을 비롯해 일요일, 법정 공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는 환경 미화원에게 1인 1알씩 탈수 방지용 정제 포도당을 지원하고, 햇빛 및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팔토시와 목토시를 지급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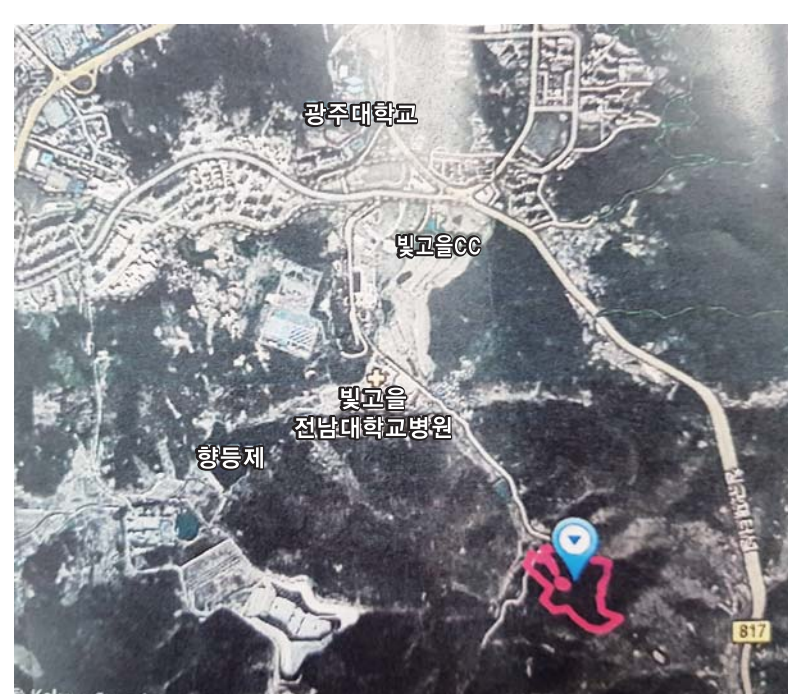
또 평일에도 35도 이상의 폭염 경보가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야외작업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체의 작

업을 모두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남구 관계자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길거리 관리를 위해 애쓰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게 됐다"며 "이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 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중찬 기자

민원·생활불편 제보 720-1050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